

사설

학내 공간의 새로운 혁신을 꿈꾸며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 104호는 지난 1년 동안 방치됐다. 원래는 학교 공용 전산실로 사용됐으나 접근성이 높은 청운관 전산실이 더 자주 사용되며 유명무실한 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거환경학과 주서령 교수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쓰이지 않던 104호는 ‘쿠리에이티브 랩(KHUreative Lab)’으로 변모했다. 쿠리에이티브 랩은 강의실이 가진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학습 공간이다. 강의, 조별 활동,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생활과학대학 교수진은 코넬대학교 윤소연 교수의 ‘Active Learning; engaging students’ 교수법 특강을 듣고 학생 참여적 교육 환경 조성을 염원해왔다고 한다. 이 염원은 여러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제시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

디어로 구체화됐고, 쿠리에이티브 랩으로 실현됐다. 기능을 상실하고 낭비되던 교내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예는 쿠리에이티브 랩 외에도 많다. 지난 2학기에는 비어있던 이과대 서관 5~7층에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섰다. 흥릉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우리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협력해 바이오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수용률이 낮았던 서울캠 행복기숙사 C동과 삼의원은 각각 캠퍼스타운 창업공간과 이문혁신창업센터로 바뀌게 됐다. 노후화로 수용 인원이 줄어들고 창업에 대한 학생 수요가 늘자 과감한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창업에 대학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학교 공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캠 단과대학 중 정경대학은 재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그에 비해 공간이 좁아 문제가 됐다. 2018년 3월 정경대 학생회는 기자 회견을 열었고 4개 고시반을 이과대 서관으로 이전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비슷한 시기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은 B동, C동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공동 세미나실과 연습실을 마련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또한 학생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열람실을 재단장했다. 학교엔 아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많이 남아 있다. 일례로 문과대학과 외국어대학에는 승강기가 없다. 문과대학은 그나마 구름다리로 이어진 이과대 서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어대학은 단독 건물이라 이러한 방

법도 없다.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거동 불편자의 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며 학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졌다. 학교는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평소 사용률이 낮은 장소나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한 공실을 조사해 쓰임새 있게 개편해야 한다.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선 구성원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내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전산실이 새로운 강의실이 되기도 하고 기숙사가 창업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핵심은 이 모든 변화가 구성원들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학교가 비어있는 지금을 공간 혁신을 위한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

세시봉

관심의 방향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미안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지 두 달째다. 미안마의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는 21일까지 쿠데타에 저항해 시위에 나선 시민 약 25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은 23일 기준 2600여 명에 달한다. 인권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미안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최소 20명 이상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다. 총칼을 든 군부에 맞서 미안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 수녀는 군인들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호소했으며, 다른 시민은 시위에 나선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며 보호장구를 나눠줬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미안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K팝을 좋아하던 한 시민은 자신의 SNS에 한글로 “미안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응답했는가? 포털 검색량을 통해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구글 트렌드>에서 ‘미안마’라는 키워드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의 뒤를 이었다. 미안마에 대한 관심도는 주식의 약 1/12, 비트코인의 약 1/8에 불과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통계 결과다. 미안마의 상황은 ‘채테크’와 관련된 이슈에 묻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구 한복판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채테크나 하는 게 말이 되는가?”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비교적 ‘남의 일’에 해당하는 미안마의 상황에는 너무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 아닐까? 미안마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유리 씨는 “말 한마디라도 해외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걸 보면 큰 힘을 얻는다.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함께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다”라고 말했다. 채테크도 좋지만 지금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미안마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기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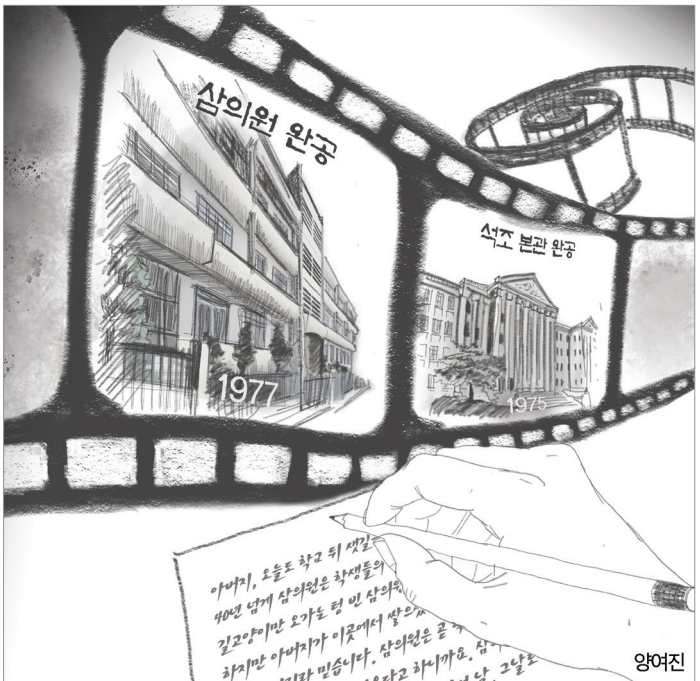
종이 한 장 차이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삼의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요. 다른 부서도 연락해 보셔야 할 거예요.” 197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캠퍼스 학생의 삶터였던 기숙사 삼의원은 오는 2학기 이문혁신창업센터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학교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삼의원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과 작년까지 기숙사로 운영되었기에 더욱 의아했다. 삼의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관계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했고, 관련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40여 년 동안 경희의 일부였던 삼의원이 지워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경희와 함께한 오랜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학교의 역사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경희기록관이 최후로 기댔만한 곳이었지만, 그곳 역시 대

학 건축물에 대한 기록 보존이 충분치는 않아 보였다. 방대한 역사 기록 대상에서 삼의원은 아마도 후순위였을 것이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삼의원에 거주했던 동문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년간 삼의원과 함께한 안승범 교수는 삼의원을 ‘시작들이 붐비던 곳’이라 표현했다. 공간에 쌓인 시간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다. 공간에서 탄생한 수많은 ‘시작’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나쳐가는 역사를 붙잡아 기록해야 한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기억되는 것과 잊혀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생각한다. 그 한 장의 종이에 있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채워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56년간 자리를 지킨 노천극장 소라관 철거를 기록했던 것처럼 삼의원 또한 기록한다. 훗날 낡은 신문을 열어본 누군가가, 창업센터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을 키우던 곳이었음을 알길 바란다.



만평 우리의 책임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